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

별마로천문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월읍 야경.

영월 별마로천문대

해발 799.8m 봉래산 정상 망원경 등 천체관측 장비 보유 9500개 별 날씨 상관없이 감상

산 아래 탁트인 경치 일품 남녀노소 인생샷 성지로 각광 영월군, 명소화 프로젝트 추진

◇인스타 성지 영월 별마로천문대

별마로천문대는 별마로 별과 마루(정상), 로(고요할 로)의 합성어로 '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'이라는 뜻이다.

2001년 대전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시민 천문대로 해발 799.8m 봉래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름 800mm 주망원경을 갖추고 있다.

보조망원경 4대를 갖춘 슬라이딩 돔(보조관측실)에서 실제로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으며, 내부 실감형 컨텐츠를 통해 남녀노소 천문학을 좀 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다.

천체투영실에 설치돼있는 투영기(GOTO(일본)의 오르페우스(Orpheus))로 8.3m 돔 스크린에 9500여 개의 별 표현 가상의 별을 투영해 날씨에 상관없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으며, 별자리 찾는 방법, 별자리 이야기 등의 재미있는 설명도 들을 수 있다.

◇눈과 입이 달달한 별마로천문대

별마로천문대는 연간 관측 일수가 196일로 우리나라 평균 116일보다 80일이 많고 안개의 영향도 덜 받는다. 이때문에 국내 최고 최상의 관측 여건을 갖춘 시민 천문대로도 불리운다.

산 정상에서 넓은 시야로 내려다 보이는 영월읍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이다.

개인적으로는 낮 보다는 사방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땅 아래로 내려 온 듯 수 만개의 조명이 수 놓아진 한 밤 야경이 더욱 더 아름답다.

사방이 탁트인 유리벽이 감싸 별도의 조명을 켜지 않아도 따스한 햇살이 환하게 감싸는 카페 799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우빠별(우유에 빠진 별마로)을 마시며 감상하는 영월의 수려한 자연 경관도 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. 영월읍 하송리 시가지에 마련된 승강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올라가야 한다.

◇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감동

별마로천문대는 누구나 인생 샷을 촬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인스타 성지로 꼽히고 있다. 세계적인 명차 BMW도 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았다"고 후기를 남겼다.

◇국내 최대의 우주·천문 도시로 비상

영월군에서는 별마로천문대가자리하고 있는 봉래산에 전망타워, 전망돔, 모노레일 등을 갖추는 봉래산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. 별마로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봉래산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국내 최대의 우주·천문 도시로 비상하겠다는 계획이다.

별마로천문대와 금강정이 있는 봉래산과 영월읍을 하늘섶다리로 연결하고 청령포와 장릉, 선돌, 관풍헌 등 인근 관광 명소까지 연결시켜 영월군을 야간 및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.

전망타워(H=55m·W=28m)와 모노레일(30인승 6대· L=1.65km·W= 2.5m), 동강보도교(L=264m·B=2m), 전망돔(모노레일 상부승강장), 금강공원(별빛정원·별빛로드),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고 영월 관광의 랜드마크로 계속 성장할 봉래산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 진다.

◇인근 가볼만한 곳

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봉돼 영월에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무덤인 장릉(세계 문화유산)이 자리하고 있다. 또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호장 엄흥도(嚴興道)가 몰래 수습해 동을 지산 자락에 암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충절의 도시 영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.

청령포 바로 옆에는 미디어 체험관과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의 3D 몰입형 미디어아트 영상 등 과거 우리 나라 산업을 선도한 폐광 지역의 관광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영월통합관광센터도 특별한 볼거리이다.

높이 70m의 입석으로 큰 칼로 암석을 쪼갠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선돌바위와 금강정원 내 라디오스타박물관 등도 영월읍내 별마로천문대와 함께 즐길만한 명소이다. 영월 봉래산 활공장에서 출발해 동강 둔치까지 패러글라이딩으로 내려오며 웅장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도 감상할 수도 있다.

/강원일보 오윤석 기자·사진제공=영월군

별마로천문대 외부 전경.

영월읍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별마로천문대 내 카페 799.

별마로천문대 내부 모습.